

사회

로스쿨 총정원 2000명으로 증원

대학별 입장차

전남대 “수용” 조선대 “거부”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을 애초 안 보다 500명 늘린 2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 중인 전남대와 조선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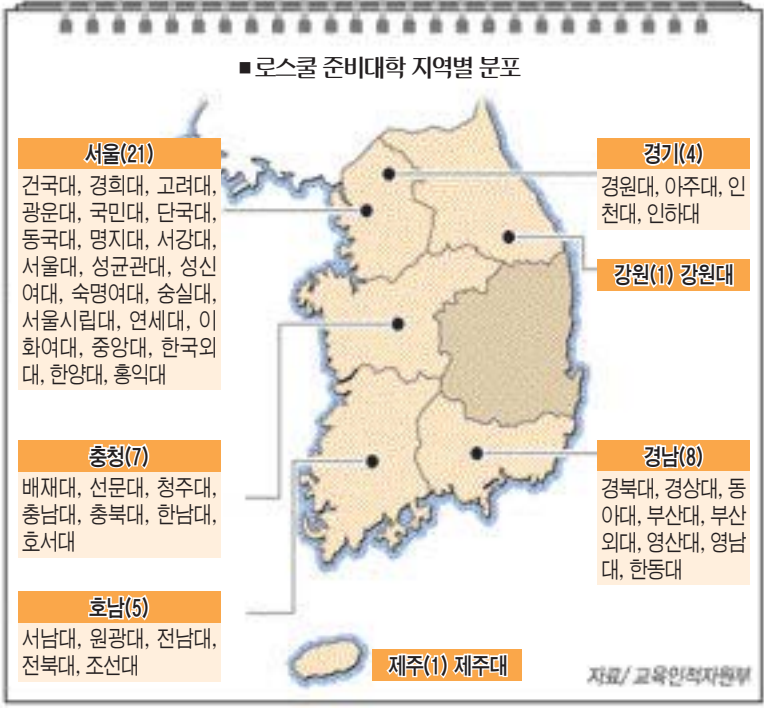
법학교육위 전국 5~6개 권역 할당방안 검토

전남대는 지난 25일 광주대·동신대·전북대 등 지방 국·사립 15개 대학 총장들이 “2009년 로스쿨 도입 첫 해의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었다. 이 조정안은 26일 발표한 교육부의 입장과 같지만 “교육부 안에 반대하며 정원 3천200명 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수도권 사립대 및 지방 사립대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하고 있다. 전국 법과대학학장들의 회합을 맡고 있는 중앙대 장재욱 법과대학장은 “정원이 늘어나니 했지만 현재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계속 무시하면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할 때에 비해 인가 대학이 5곳 많은 25곳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다.

또 로스쿨 관련법 규정상 ‘지역균형 발전’ 원칙이 적용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들의 로스쿨 인가 규모가 확대돼 로스쿨 인가 대



학이 전체적으로 25곳을 넘어설 것이라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자체별로 다 나눠주자단 ‘한도 끝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6개 권역별로 나눠 로스쿨을 배분 내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 대학들은 16개 광역자치체별 로 1개 이상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면 우리가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법무부에서 발표한 대학별 사시 합격자 수(전남대 19명)나 로스쿨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준비 등이 잘 돼 있어 자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조선대 법과대학 김준환 학장은 “지금까지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로스쿨 선정에는 자신 있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2천명의 인원으로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정원은 3천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향후 일정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사립대 대학들도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매맞는 남편’ 크게 늘었다

최근 4년 1,318건 신고 노인·아동학대 보다 많아

“매 맞는 남편”이 학대받는 노인이나 아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에게 제출한 국가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5만9천1건이며, 피해자는 6만5천599명에 달했다.

으로 많았다. 이어 남편학대가 1천 318건(2.2%)으로 아내학대와 함께 한국사회 대표적 3대 가정폭력 유형으로 꼽히는 노인학대 1천34건(1.8%)와 아동학대 280건(0.5%) 보다 더 많아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체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005년 1만1천595건에서 2006년 1만 1천471건으로 줄어들었으나, 남편학대는 2005년 276건에서 2006년 299건으로, 노인학대는 2005년 178건에서 2006년 223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 개인파산 신청자 3년새 6.5배 급증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아

서울·경기지역보다 광주 등 지방에서의 개인파산 신청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2만3천 691명으로 32배나 급증했다. 또한 2006년 개인파산 신청 현황을 보면 충북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70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광주(644%), 창원(523%), 부산(460%) 순이었다.

대통령취급직인 이상민 의원은 26일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개인파산이 급증했고 서울·경기 지역보다 지방에서의 증가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 지역은 전년 대비 304% 늘었고 서울은 248% 증가해 서울 지역보다 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3년 3천856명

다.



외국인 유학생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26일 광주시 초청으로 ‘1일 시티투어’에 참여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가지동자 견학,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삼심전시 견학, 국립 5·18 묘지 참배 순으로 투어를 했다.

시민참여조례 제정하라

광주 시민단체 의회에 촉구

광주 참여자치21, 경실련 등 광주 지역 4개 시민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안에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지난 4월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6개월째 기약없이 계류 중”이라며 “그동안 시민단체는 끊임 없이 논의 진행을 촉구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어떠한 논의나 여론 수렴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가 조례 제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비판했다.

생활 기사판

화속

- ▲김용철씨 마네 판중군 이행 준수 차녀 희승양=28일(일) 낮 12시10분 천주교 학운동 성당.
▲심용식씨 차남 우현(한국건설)군 김재일(영진세라믹 차장)씨 동생 애숙(현대병원) 수간호사)양=28일(일) 낮 12시30분 교원공제회관 3층 웨딩홀.
▲이정철씨 장남 명규(현대개발건설 대리)군 서용기씨 장녀 미영양=28일(일) 낮 12시30분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김선표씨 장남 진일(곡성상류게소 관리과장)군 광동군씨 장녀 숙희(주요임용계소 판매원)양=28일(일) 오후 1시 광산구 클럽버스터웨딩홀 2층 아모르홀.
▲송명기(용산전력 대표)씨 장남 화중군 정찬길(서울 필독초교)씨 장녀 혜진양=28일(일) 오후 1시10분 프라다호텔 2층 다리아몬드홀.
▲주영천(담양 부군수)씨 차남 창현군 고하선씨 차녀 수진양=27일(토) 오전 11시45분 오페라하우스 3층 그랜드 특실.
▲홍석태(전남도청 복구지원과장)씨 차남 영훈(롯데 코리아 세븐㈜ 지원팀 계장)군 김영석(㈜영전산업 대표이사)씨 장녀 선주양=27일(토) 낮 12시 에블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임채준(전 한일정형외과원장)씨 차남 중영(남부대 교수)군 주순문씨 장녀 오수영(고창여고 교사)양 27일(토)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신재희(광산신씨 강진군 화수회장)씨 장남 성민군 정병원씨 3녀 현화양=27일(토) 오전 11시 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메랄드홀.
▲고민관(전남도청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씨 장남 건일군 조선씨씨 차녀 명진양=27일(토)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최민하씨 장남 건상(송정농업협동조합)군 박흥남씨 장녀 선영(광주 신세계 홍보실)양=27일(토)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머랄드홀.
▲황정례씨 아들 이충권군 신경우(무안교육장)씨 딸 소원양=27일(토) 오후 1시30분 오페라 하우스 1층 에머랄드홀.
▲최정권(대전일보 이사)씨 장남 재석(대덕전선)군 황경연씨 장녀 옥윤양=27일(토) 오후 1시50분 상륙웨딩홀 3층 무궁화홀.
▲신태균(영암 문화원장)씨 장남 재현군 천시옥씨 딸 주희양=28일(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이길재(흥한개발 대표)씨 장남 수현(흥한개발)군 조규철(여수 서원치과기공소)씨 차녀 난형(서울 현대치과 원장)양=28일(일)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이충근씨 별세 선동철(산업은행 부부장)씨 모친상 = 발인 27일(토) 보성군 법교읍 법교장례식장 1분향소. 061-858-4000

탐진강 상류에 은어 서식환경 만든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단식 어도 개보수

장흥군과 강진군에 흐르는 탐진강 상류에 은어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복구 사업이 진행됐다.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장흥해양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과 강진군, 강진해양사무소와 합동으로 탐진강 어족 분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 상류에 많은 개체수의 은어가 서식하고 있는 반면 상류에는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탐진강 중·상류 주변 보(淤)와 함께 만들어진 어도(魚道·고기가 다니는 길)가 은어의 상류 서식을 막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해양사무소 관계자는 “탐진강 하류에는 은어떼가 서식하고 있는데 반해 상류에는 20~30마리만 눈에 띈다”며 “보를 설치하면서 만든 계단식 어도가 은어의 상류 진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흥해양사무소 등 관계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단식 어도를 생태학적으로 개·보수하는 등 은어 상류에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볼 계획이다. 은어는 9~10월 부화한 뒤 바다에 내려가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 다시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온다.”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인, 영업, 모집, 사설, 메일,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분양. 061-221-8030

신문실. 광고회원증, 정기회원증, 단회원증, 청소년회원증, 외국인회원증, 장애인회원증, 노인회원증, 아동회원증, 청소년회원증, 장애인회원증, 노인회원증, 아동회원증

산행안내. 10월 28일(일) ▲한울산악회... 11월 3일(일) ▲광주지역 산악회... 산행코스, 장비, 안전사항 등 상세 안내 제공

금당부동산. 223-7400, 016-632-5658.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분양 등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제공

국도변. 나주·남평역 인근, 남향투자 최적지, 선산 최적지, 22,353㎡ (7,000평), 주인직접 (평당3만)

금매.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관리지역 임야 85,950㎡, 분할가능, 정남향, 전력380kw 설치됨, 매매가는 상담후 결정